

SPORTS '9연전 돌입' KIA, 순위 반등 노린다

2025년 4월 29일 화요일



신한 SolBank KBO 리그 중간 순위 (28일 현재)

순위	팀명	경기	승	패	무	승률	게임차
1	LG	29	20	9	0	0.690	0
2	삼성	29	17	12	0	0.586	3
3	한화	30	17	13	0	0.567	3.5
4	롯데	30	16	13	1	0.552	4
5	KT	29	14	14	1	0.500	5.5
6	SSG	27	13	14	0	0.481	6
7	KIA	28	13	15	0	0.464	6.5
8	두산	28	12	16	0	0.429	7.5
9	NC	25	9	16	0	0.360	9
10	키움	31	11	20	0	0.355	10



29일~5월 7일 NC·한화·키움과 각 3연전
13승 15패 리그 7위...활화산 타선 기대감

이번 주부터 프로야구 10개 구단이 휴식 없는 9연전을 치르는 가운데 KIA타이거즈가 순위 반등을 노린다.

KIA는 지난주 주중 삼성라이온즈에 2패 (1경기 우천취소)를 당한 뒤 주말 LG트윈스를 상대로 위닝시리즈를 달성했다. 그 결과 13승 15패 승률 0.464를 기록, 순위는 7위에 머물렀다.

현재 KBO 리그 순위 경쟁은 치열하다. 리그 1위 LG트윈스는 시즌 초반부터 많은 승수를 쌓으며 치고 나갔지만, 2위 삼성과 3.0게임차로 줄었다. 그 뒤는 3위 한화이글스 (3.5게임차)와 4위 롯데지아언츠 (4.0게임차)가 바짝 쫓고 있다. 중위권에서는 5위 kt위즈 (5.5게임차), 6위 SSG 랜더스 (6.0게임차), 7위 KIA (6.5게임차)가 각각 반 경기차로 팽팽한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다.

하위권 역시 8위 두산베어스 (7.5게임차)부터 10위 키움히어로즈 (10.0게임차)까지 큰 차이가 없다. 이런 가운데 29일부터 5월 7일까지 한국프로야구 10개 구단이 휴식 없는 9연전을 치른다.

당초 KBO 리그는 전역 경기 편성 기간 전에는 월요일에 경기를 치르지 않는다. 하지만 월요일인 올해 5월 5일 어린이날에는 프로야구 5경기를 편성했다. 이례적으로 5월 5일 월요일에 경기를 치른 뒤 사흘 후인 8일 목요일에 하루 휴식한다.

구단별 간극이 좁혀진 상황에서 이번 9연전은 요동치는 순위 판도를 바꿀 분수령으로 꼽힌다. KIA는 이번 주 주중 9위 NC다이노스 (9.0게임차)에 이어 주말 상위권 한화와 홈에서 경기를 치르고, 고척에서 키움과 경쟁을 벌인다.

순위 향방을 가를 이번 9연전에서 '디펜딩 챔피언' KIA가 좋은 성적표를 작성한다면 단번에 최상위권으로 치고 갈 수도 있다.

현재 KIA의 타선 분위기가 또한 좋다. 먼저 슈퍼스타 김도영이 돌아왔다. 개막전 당시 왼쪽 햄스트링 부상으로 이탈했던 그는 지난주 주말 LG전에 복귀했다. 3경기 동안 성적은 9타수 3안타 1홈런 4타점 타율 0.333. 첫 경기에서는 대타로 출전해 2타점 적시타를 뽑아냈다. 이튿날에는 선발 출전해 4타수 2안타 1홈런을 만들면서 팀 승

리를 견인했다. 주말 마지막 경기에서는 안타를 생산하지 못했지만, 홈런성 파울 타구를 때려내며 상대 투수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다.

박찬호 또한 지난주 5경기에서 15타수 6안타 1홈런 타율 0.400을 기록하며 맹활약했다. 그간 테이볼세터의 활약이 두드러지지 않았지만, 최근 김선빈과 함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해결사' 최형우 또한 지난주 5경기에서 17타수 5안타 1홈런 5타점 타율 0.294로 팀 타선을 이끌었다. 최형우는 지난 27일 LG와의 경기에서 4회말 선두타자로 나서 상대 초구 140km 직구를 그대로 걷어 올려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포를 쏘아 올렸다. 그의 활약에 힘입어 KIA는 3-2 승리를 거뒀다.

이렇듯 타선이 활성화되면서 KIA는 지난주 팀 타율 3위 (0.287)에 올랐다. 안타 49개 (5위), 홈런 5개 (4위), 홈루율 0.353 (4위), OPS (출루율+장타율)도 0.809로 공동 2위에 위치했다.

마운드에서는 외인 원투펀치가 활약 중이다. 올러는 지난 26일 LG전에 출전해 7이닝 1피안타 8탈삼진 무실점 호투를 펼쳤다. 올러가 KBO 리그에 데뷔한 이후 최초의 무실점 경기였다. 그간 경기에서 다소 불안한 모습이 있었지만, 이날 클리틱스타트 플러스 (QS+·7이닝 3자책 이하)를 기록하며 앞으로의 기대감을 높였다.

'에이스' 네일 또한 지난 27일 LG전에 출전해 6이닝 4피안타 3탈삼진 2실점으로 호투했다.

이런 상황에서 KIA는 주중 경기로 NC와 크게 맞붙는다. NC는 현재 9승 16패 승률 0.360으로 리그 9위에 위치했다. 평균자책점은 5.96으로 최하위다. 타율은 6위 (0.245), 홈루율 6위 (0.328), OPS 6위 (0.732) 등 모두 KIA를 밀치고 있다.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만난 NC는 로건을 29일 선발로 내보낸다. 이에 KIA는 김도영을 선발로 투입한다.

NC와의 일정을 마친 KIA는 주말 광주에서 한화를 상대한 뒤, 고척에서 키움과 일전이 예정돼 있다. KIA가 이번 9연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상위권에 정착할 수 있을지 팬들의 관심이 쏠린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전남 펜싱, 전국중별선수권 단체전 '정상'

여자일부 에페 결승서 충북도청 45-35 제압
남일부 황태현, 개인전 우승...금 2·동 6

전남 펜싱이 '제54회 회장배 전국남녀중별펜싱선수권대회' 단체전 정상에 오르는 등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28일 전남도체육회에 따르면 최근 충북 제천 세명대학교체육관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 전남도청과 해남군청, 전남체고, 전남기술과학고 선수들이 출전해 금메달 2개와 동메달 6개 등 다수의 메달을 획득했다.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전남도청 여자 일부 에페 단체전 우승이다. 김향은, 박소형, 김태희, 박새롬으로 구성된 전남도청은 8강전에서 부산시청을 만나 치열한 접전 끝에 45-44로 신승을 거두고 4강에 진출했다. 이어 계통시청을 45-31로 제압한 뒤, 결승에서 충북도청을 45-35로 완파하며 정상에 올랐다. 지난 실업연맹전 단체 준우승의 아쉬움을 털어낸 값진 승리였다.

여자 일부 사브르 부문에서도 개인·단체전 모두 메달권에 입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여자일부 사브르 개인전에 출전한 김지현은 동메달을 수확했다.

김지현은 8강전에서 이주은 (서울시청)을 15-14로 꺾으며 4강에 올랐지만, 김지현 (안산시청)에게 13-15로 아쉽게 패하며 동메달에 만족해야

했다. 여자일부 사브르 단체전에서는 김지현, 박다은, 손정민이 출전해 4강전에서 서울특별시청에 28-45로 패하며 동메달을 건졌다

남자 일부 에페 개인전에서는 황태현 (해남군청)이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황태현은 16강전에서 진유담 (울산시청)을 만나 15-14로 이긴 뒤, 8강과 4강에서 같은 소속팀 선수인 권오민과 구영모를 각각 15-11, 15-9로 꺾었다.

결승에서는 이정함 (광주 서구청)과 치열한 승부를 펼친 끝에 12-11로 승리하며 정상에 올랐다. 같은 부문에서 구영모가 3위를 차지해 해남군청은 개인전에서 2명의 입상자를 배출했다.

남자 일부 에페 단체전 또한 구영모, 황태현, 권오민, 윤정원 (이상 해남군청)이 힘을 합쳐 4강까지 진출했으나, 부산시청에 38-45로 패하며 아쉽게 3위에 그쳤다.

고등부 역시 전남 선수들의 활약이 이어졌다. 전남체육고등학교는 여자 고등부 플러레 단체전에 최지애, 김승주, 이지예, 김윤재가 출전해 8강전에서 장문여자고등학교를 45-35로 꺾으며 4강에 올랐으나, 성남여자고등학교에 38-45로 패해 3위에 머물렀다.

전남기술과학고등학교는 여자 고등부 사브르 단체전에서 공예진, 강누리, 김슬리, 박소현이 출전해 동메달을 따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제54회 회장배 전국남녀중별펜싱선수권대회' 단체전 정상에 오른 전남도청 펜싱팀.



'제54회 회장배 전국남녀중별펜싱선수권대회'에서 활약한 해남군청 펜싱팀.



전남 휠체어 컬링이 '2025 하이코어배 코리아휠체어컬링리그' 혼성4인조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전남 휠체어 컬링, 국대 선발전 리그 '우승'

하이코어배 혼성4인조 결승서 경기도 6-2 제압

전남 휠체어 컬링이 '2025 하이코어배 코리아 휠체어컬링리그' 혼성4인조 경기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전남 휠체어 컬링은 최근 대한장애인체육회 인천선수촌과 강릉컬링센터에서 열린 이번 대회 혼성4인조 결승에서 경기도장애인체육회를 6-2로 꺾고 우승의 영예를 안았다.

대한민국 휠체어컬링 국가대표 선발전을 겸하는 이번 리그에는 전남도,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서울특별시청, 인천상록수, 전북휠체어컬링 등 총 10개 팀이 참가해 휠체어컬링 (혼성 4인조)과 휠체어믹스더블컬링 (혼성 2인조) 경기를 치렀다.

이번 리그는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패럴림픽 국가대표 선발전과 직결되는 대회로, 상위 4개 팀이 국가대표 선발전 진출 자격을 획득하고 패럴림픽 출전권 가려지는 중요한 경기였다. 결승전 1세트 초반 실점으로 불리하게 출발했던

전남은 8세트까지 꾸준히 점수를 획득하면서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이번 대회의 우승자인 전남도는 컬링 전용 경기장이 없어 선수들이 타지역으로 이동해 전지훈련을 하면서도 꾸준히 기량을 쌓아왔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끈질긴 노력과 열정으로 이번 대회에서 두드러진 활약을 펼쳤다.

전남도의 우승은 전략적 경기 운영과 탄탄한 팀워크가 결합된 결과로 평가되며, 장애인 컬링의 경쟁력 향상을 입증했다.

박정현 전남도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은 "이번 리그에서 전남도 컬링선수단의 우승은 국가대표 선발의 가능성을 보여 주는 의미있는 성과였다"며 "앞으로도 동계 종목에 대해 전남도장애인체육회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회 우승팀에는 500만원, 준우승팀 (경기도)에는 300만원, 3위팀 (강원도)에는 2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송하중 기자 hajong2@